녹색경영 선도기업 에쓰오일
환경부장관상 수상!
휘발유/경유 환경품질 최다 최고등급
국내 정유업계 최초 환경마크 인증획득
S-OIL

중앙일보

안내:02-751-5114 고객센터:1588-3600
서울 10/17℃ 인천 10/14℃ ▶날씨 8면
joongang.co.kr
단기 4345년 (음력 3월 21일)
제14685호 43판 2012년 4월 11일 수요일

대한민국 참교육대상 3년 연속 수상
대한민국 전문 인재뱅크-
명지전문대학
MYONGJI COLLEGE

19대 총선을 하루 앞둔 10일 오후 배우 차인표(45)씨가 이번 투표로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가 열리기를 소망하며 종이비행기를 날리고 있다. 안성식 기자

차인표 촬영하다 사라진 대만 배우들 … 알고 보니 총통선거 투표하러 귀국

중앙일보·중앙선관위 공동기획

드디어 제가 기다리던 날이 밝았습니다. 아내 신애라씨와의 기념일이냐고요. 아닙니다. 물론 새 작품 첫 촬영 날도 아닙니다. 오늘은 바로 4월 11일, 19대 국회의원 선거 날입니다. 저는 요즘 KBS 시트콤 '선녀가 필요해' 촬영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생애 첫 시트콤 도전이라 공부할 게 참 많습니다. 요즘 제 얼굴을 보면 웃음부터 난다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정말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시트콤 촬영으로 바쁜 스케줄이지만, 오늘은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집 근처 투표소에 들르는 일인데요. 아무리 시간이 빠듯해도 꼭 다녀올 생각입니다.

저는 선거 날을 마치 기념일처럼 꼬박꼬박 챙긴답니다. 이유가 궁금하시죠. 바로 몇 년 전 중국에서 드라마 촬영을 할 때 받은 문화적 충격 때문입니다. 당시 제가 출연한 드라마에는 홍콩·대만 배우들이 함께 출연했는데요, 의상 준비까지 마치고 다 함께 중국 상하이에 도착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착해보니 대만 배우들이 아무도 오지 않은 거예요. 곧 촬영이 시작되는데 왜 보이지 않을까 궁금했습니다. 스태프들에게 물어봤더니 대만 배우들이 상하이에 도착했다가 대만 총통 선거 때문에 투표하러 잠시 대만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비행기로 오가는 게 간단한 일이 아닐 텐데 시간과 돈을 들여 기꺼이 한 표를 행사하러 갔다니! 투표를 마땅히 참여해야 할 의무라고 여기는 대만 배우들에게 존경심이 생겼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꼭 투표를 하겠다'고 마음먹게 됐죠.

오늘은 바로 그 결심을 실천하는 날입니다. 내가 참여하지 않는다면 내 주변 사람들도 투표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아야 합니다.

저는 지금 선거 공보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내 가족의 미래를, 대한민국 정책과 살림을 책임질 든든한 후보가 누구일까 고민하는 중입니다. 자, 여러분 마음의 결정을 내리셨나요. 그럼 저와 함께 투표소로 출발해 볼까요. 참, 집을 나서기 전 투표소 위치를 확인(www.nec.go.kr '내 투표소 찾기')하시고,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도 꼭 챙기세요.

오늘 투표용지 2장, 세종시는 4장 … 꼭 확인하세요

오늘은 국회의원 300명(지역구 246명·비례대표 54명)을 뽑는 19대 총선일이다. 유권자는 후보와 정당이 기입된 2장의 투표용지에 기표해야 한다. 신설된 세종시에선 지역구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시장, 교육감을 4장에 나눠 찍는다.

총선 이슈 »3면 수도권 유세전 »4, 5면 SNS에선 »6면

오늘 경제섹션 쉽니다 내일 일부지역 배달 지연됩니다

로스쿨생 61% 서울 거주, 17%는 강남에 살아 »8면

탐사 기획 지난달 첫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배출한 로스쿨의 1, 2, 3기생 5074명의 주거지 정보를 분석한 결과 서울 거주자 비율이 61.4%로 나타났다. 서울 거주 학생 중 강남 3구에 사는 학생은 27.2%였다. 로스쿨 전체 학생 기준으로도 강남 3구 학생 비율이 16.7%에 달했다. 경제 능력은 로스쿨 선택에도 영향을 미쳤다. 거주지 주택 가격과 로스쿨 선호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부자 동네에 살수록 명문 로스쿨에 진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천에서 용 나기 어려운 세상이 된 것이다.

잔혹한 살해의 이유 "그녀가 운이 없었다"

프로파일러 권일용 경감 우위안춘과 4시간 독대

권일용(48) 경찰청 과학수사센터 경감은 10일 "우위안춘은 한국에서 막노동으로 번 돈 700만원을 뺏길까봐 두려워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했다고 자백했다"고 밝혔다. 권 경감은 "지금껏 400여 명의 살인범을 수사했지만 이번처럼 잔혹한 살해 현장은 처음"이라고도 했다. 국내 프로파일러 1호인 그는 지난 7일 오후 수원 토막살인 사건 용의자인 우위안춘(오원춘·42)과 4시간 동안 독대했다. 범행 동기를 밝히고 수사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였다. 〈관계기사 2, 20면〉

우씨는 피해자 A씨(28·여)에 대해 "피해자가 운 없이 골목에 나타나 당한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우씨는 어떤 사람인가.

"중국 네이멍구(內蒙古) 에서 태어나 자랐다. 2007년 한국으로 오기 전까지 중국에서 벼농사·막노동을 했다. 현지에서 고리대금업자들에게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 욕을 먹고 맞거나 무시당했다고 하더라. 그런 경험 때문에 돈에 집착하게 됐다고 한다. 한국에서 막노동을 할 때 동료들과 어울리지 않은 이유도 '어울리다 보면 막걸리도 한잔 사야 하는데 돈이 아까웠다'고 진술했다."

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 2면 '우씨'로 이어집니다

북 인민무력부장에 김정각

당대표자회 하루 앞두고 임명 "김정은 체제 세대교체 신호탄"

북한이 당대표자회를 하루 앞둔 10일 김정각(사진·71)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차수)을 인민무력부장에 임명했다. 북한 조선중앙방송은 10일 오후 김정각을 인민무력부장이라고 보도했다. 평안남도 증산군에서 태어난 그는 1959년 인민군에 입대해 대대장과 훈련소 참모장을 거쳐 2007년 10월 총정치국 제1부국장에 임명됐다. 〈관계기사 10면〉

인민무력부는 국방위원회 산하 집행기구로서 우리 국방부에 해당한다. 산하에 총정치국·총참모부·보위사령부 등을 통해 정규군의 군무를 총괄·집행한다. 김영춘 전 인민무력부장이 어디로 옮겼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와 함께 9일 김정일의 국방위원장 추대 19주년 기념 중앙보고대회에 차수 군복을 입고 등장한 최용해(62) 당 중앙위원회 근로단체 담당 비서는 국방위 제 1부위원장 또는 인민군 총정치국장에 임명됐을 가능성이 크다.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신임을 받던 최용해는 10일자 노동신문 1면에서 이례적으로 이영호 총참모장 바로 앞에 거명됐다.

정창현 국민대 교수는 "기존 김영춘·오극렬로 대표되는 혁명 2세대들이 퇴진하고 그보다 10~15년 젊은 2.5세대 후발 주자를 현직에 앉힌 것"이라며 "김정은 체제에 맞춘 세대교체의 신호탄"이라고 해석했다. 한편 11일 제 4차 당대표자회에선 김정은이 당 총서기에 오른다.

이원진 기자 jealivre@joongang.co.kr